

고흥군,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 다짐



같이 해서 더 행복한 고흥, 같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 퍼포먼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1일 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류은자) 주관으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같이 해서 더 행복한 고흥, 같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를 주제로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김민열 고흥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및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 ▲기념식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힘써온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소방서, '스트레스 비우고 활력 채우기' 직장교육

보성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현장 대응과 각종 현장 활동으로 누적된 직원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비우고', 불링 등 건전한 신체활동과 직원 간 소통·화합을 통해 활력과 긍정에너지를 '채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위반행위 예방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자살위험 징후 및 위기상황 대처방법 교육 ▲불링을 통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소방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근무환경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 '불멸의 명랑·호국의 울돌목' 축제 막 올라

가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6 명랑대첩축제가 해남·진도 울돌목 일원에서 11~13일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자치시와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명랑대첩축제는 전남광주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이순신 장군의 애국혼을 기리고,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격년제로 주 행사장을 해남과 진도에서 번갈아 개최하면서, 올해는 진도 승전무대를 주무대로 하여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운영된다.

11일에는 해남·진도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진도대교를 행진하는 출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진도 승전무대에서 개막식과 명랑대첩을 주제로 한 융복합 실감형 공연, 명랑 축하쇼와 불꽃쇼 등이 펼쳐졌다.

/박종욱 기자

(썬)빛글, 진도군에 엘이디(LED)조명등 1,071개 기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인근 해변에서 바다에 빠진 일가족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중 2명은 숨졌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이날 A리조트 인근 해변에서 가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 완도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CCTV 확인결과, 사고 당시 일가족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물에 빠지자 모친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은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있던 B씨(8세)를 구조한 뒤 의식이 없는 B씨(40대)와 C군(4세)을 추가로 구조했다. B씨와 C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A군은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행복 배달부'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장흥군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공적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령청년, 중증장애인 등 고독사 위험군 150가구다. 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2회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와 생활여건을 살피고 위기 징후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장흥군에 전달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53건의 복지서비스가 연계·지원됐다. 특히 우체국 집배원의 정기적인 방문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민원 서비스 만족도 높인다! '친절 교육' 실시

미소(Smile)·신속(Speed)·긍정(Say yes)' 3S 실천 다짐



'민선 9기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9월 10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민선 9기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군민의 다양한 민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 업무 담당자의 친절·공감 역량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자세와 올바른 응대 방법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소통 ▲상황별 민원 응대 요령 ▲친절한 언어와 태도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민원 업무 담당자들은 친절한 응대를 넘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민원 행정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담당자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친절하고, 신속하며,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친절·신속·적극적인 민원 행정 구현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완도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군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